

전승과 누습이라는 인식

다나카 셴이치

번역: 김 현정

1. 일상 · 비일상 · 반일상

우리들의 무심한 일상을 뒤받침하고 있는 것은 전승이다. 전승은 인간사회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있었던 문화이며 사회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일상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에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비일상이 관여하며 갑작스레 반일상이 끼어드는 식으로 변해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일반적으로 성과 속의 대립을 참고로 하여 우리의 생활을 일상과 비일상의 이항대립적 구도로 인식하려 하지만, 실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일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상이란 하루하루의 움직임, 음식, 사람과의 교류, 노동과 같은 것들이 영위되는 날이며 하루하루의 삶은 거의 이러한 날의 반복이다. 비일상이란 일정한 월일, 계절이 다가오거나 사람 혹은 집단의 성장 변화의 때마다 정해진 의례, 행사, 의식을 행하는 일이다. 이 또한 반복되는 것이기는 하나 매일 반복되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때를 비일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반일상이란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재해, 사고와 같은 일들이며 전쟁 또한 물론 반일상적 일이다. 생활이 일상 · 비일상으로만 움직인다면 평온해서 좋겠지만 반일상이 끼어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유감스럽게도 역사적 사실이다.

2. 전승과 전승문화 연구

전승이란 무엇인가? 내 생각은 다음과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구두로 전해지는 것들(이야기, 노래, 규범, 윤리관 등), 구두 혹은 신체 행동을 통해 전해지는 몸짓, 기술, 상호협동의 방식, 그리고 이심전심으로 계승되는 모든 관념

그리고 전해지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해지고 계승되는 행위 자체를 포함하는 것이 전승이라는 문화

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승은 앞에서 말한 일상과 비일상의 시공간 모두에서 널리 나타나며 집단적·유형적·지속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반일상에서도 전승적 행동이 취해지는 일이 있으나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반일상에서의 행동은 그때그때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전승에 의지하기란 어렵다.

위에서 전승이라 유형적·지속적이라고 했지만, 오랜 세월 속에서 주위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개변되거나 무의식중에 변화하거나 그중에는 소멸하는 것도 있다. 또 집단적으로 전해진다고도 했는데, 전승을 담당하는 집단에는 크고 작음이 있기에 그 집단 자체가 성쇠함으로써 전승은 지속되는 성질과 함께 오랜 기간 중에 변화해가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승을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연구 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승의 내용을 문자로 기록하거나 영상, 회화, 도상 등에 담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간사회가 성립된 때부터 존재하였고 조금씩 변화해왔을 전승의 내용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기에 오랫동안 전승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미약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좀처럼 없었다. 따라서 일상·비일상의 영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전승문화를 문자로 기록하는 일은 없었으며 그림으로 정착시키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전혀 기록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방대한 전승문화 중 구우일모에 지나지 않겠지만, 일본 고대의 경우 나라의 성립에 대한 전승이 『고사기』에 정리되었고 각지의 상황은 『풍토기』로 기록되었다. 이후 공가(公家)와 같은 관리의 일기, 기행문에도 일부 기록되어 남겨졌다. 또 시대의 필요에 따라 편찬되어온 유직고실서, 법령서에도 당시의 관습법적으로 전승되던 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를 좀 더 거슬러 내려와 에도 시대, 즉 17, 18, 19세기에 이르면 모토오리 노리나가와 같은 국학자들이 지방의 전승문화에서 적극적인 의미를 찾고자 하였으며, 막부의 관리였던 야시로 히로가 타는 『제국풍속문상』이라는 일종의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해 각지의 제사축제, 연중행사를 비교하고자 했다. 즉, 전승되어온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기운이 싹트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시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인지 스가에 마스미, 후루카와 고쇼켄처럼 각지를 여행하고 거기서 보고 들은 일상생활을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도 있었다. 이러한 문헌들은 기록된 전승문화로서 귀중하다.

메이지 시대가 되자 연구자들은 『인류학 잡지』(『도쿄인류학잡지』)를 간행하여 유럽의 연구 상황을 소개하였다. 또 각지의 출토유물과 함께 전승도 적극적으로 소개되어 전승문화는 점차 연구 대상이 되어 갔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전승을 기이한 습속으로 보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지역 생활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의미를 부여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일본에서 전승이 내포하는 문화적 풍요로움이 분명히 인식된 것은 메이지 41(1908)년에 야나기타 구니오가 규슈 미야자키 현 시바무라 마을을 방문하여 그곳의 일상생활 등의 전승을 접한 후 문화를 연구하는 데 전승이 지니는 중요성을 깨달은 다음부터이다. 이후 야나기타는 많은 문헌을 섭렵하고 거기에 기술된 전승문화를 찾아내어 연구의 재료로 삼았으며 관심을 갖게 된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였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야나기타 이전에는 전승의 풍요로움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기록된 전승자료는 적었다. 따라서 야나기타는 그의 생각에 자극을 받은 동지들과 함께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기록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연구를 진행했다. 그리고 쇼와 10(1935)년 전후에는 글자로 기록한 전승을 분류하여 전승문화의 전체상을 밝히고자 했으며 연구 방법을 확립시키고자 했다. 일본에서 문화연구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했던 새로운 민

속학이 이렇게 탄생하였다.

민속학자들은 각지를 방문하여 많은 전승문화를 조사했고 글로 기록하여 연구자 공통의 연구자료로 삼음으로써 조사 과정의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3. 오랜 전승을 찾아가는 조사

필자는 쇼와 30년대, 즉 1960년 전후에 대학에 입학한 후 민속학에 관심을 갖고 국내 각지를 다니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민속학이 기존의 학문들과 비교해 새로운 학문으로 일컬어졌다. 때문에 아직 자료의 축적이 충분치 않았고 따라서 각지에 직접 가서 많은 전승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여겨졌다. 또 조사를 통해 현지에서 전승을 실감해야 한다고도 배웠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서 당시까지 기록되지 않았던 자치의 형태, 생업, 제사의례·연중행사, 통과의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이상으로 열심히 찾고자 했던 것은 당시에는 이미 사라져 버렸거나 변해버렸던 그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였다. 현재의 전승보다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전전기, 즉 1880~1940년 정도의 모습을 찾아다녔다.

민속학에서는 현재의 의문에 답하기 위해 그 이전의 경위, 변천의 양상을 가능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밝혀야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올바른 답을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되어졌기에 필자는 그러한 민속학의 인식을 따랐던 것이다.

따라서 방문한 지역에서는 이미 생업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더라도 한 시대 이전의 일을 경험한 노인을 찾아가 당시의 일보다는 그들이 청장년이었던 시절에 대해 듣고 그들의 경험한 내용을 배우고자 했다. 고로가 이야기 하는 한 시대 전의 일 중에는 그보다 더 이전의 일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된 시대의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고로의 입을 통해 지금은 변해버린 옛날의 사실들을 듣는 것은 미지의 세계에 들어가는 듯한 즐거움이 있었고 그러한 방식으로 과거 사실을 기록하고 축적하는 데 의미를 두었다. 당시에는 많은 민속학자들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은 틀린 것은 아니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차츰 이런 작업만 해도 괜찮은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현재의 의문에 답한다는 목적으로 옛것을 알고자 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현재는 차치하고 옛것을, 그것도 한 시대 이전의 것을 알고자 하는 일이 목적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시대 이전의 것, 거기서 더 이전의 것을 찾아내고자 하는 일은 한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노인의 기억 또한 종종 막연하다. 잘못 기억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동안에 중요한 현재 실태를 파악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4. 현재의 전승 변화를 직시

눈앞의 다양한 일들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즉 쇼와 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1960~1975년 경)까지의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의 중심에 있었으며 기계화로 인해 농작업 방식은 변화했고 수전도작 농업에 기초해 이뤄졌던 제사의례나 연중행사도 변하고 있었다. 원유의 수입증가에 따른 에너지 혁명으로 인해 신탄 생산이 정제되었고 농가의 '이로리'라는 화로가 자취를 감추었다. 혼인, 출산 의례도 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재적 변화를 좀 더 직시하고 정확히 기록하고 그 요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 여러 변화 속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거나 변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전승인지를 밝혀내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했어야 했다.

5. 「산촌조사」의 추적조사

쇼와 51(1976)년에 나는 세조 대학에 취직했다. 대학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대학에 「산촌조사」의 노트가 보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산촌조사」란 쇼와 9(1934)년부터 3년 동안 야나기타 구니오를 중심으로 한 향토생활연구소의 동인들이 분담하여 전국 60개 정도의 농산촌에 직접 가서 그곳의 전승 생활을 조사하여 기록한 프로젝트였다.

참가자 모두가 100개 항목의 질문을 인쇄한 노트를 가지고 각각의 지역에 가서 당시까지 거의 기록되지 않았던 그 지역의 전승을 조사하여 기록했다. 같은 시대에 같은 항목으로 조사한 기록이 대학의 ‘야나기타 문고’에, 당시는 거의 아무도 이용하지 않은 채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다. 읽어보면 치밀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우 내실 있는 내용의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성과들을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워 어떻게든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선배 연구자들과 상의하여 동료 교원, 대학원 학생들과 협력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쇼와 59(1984)년부터 3년 동안 이뤄졌다. 쇼와 59년은 「산촌조사」가 이루어진 쇼와 9년부터 딱 50년이 지난 해였다. 이 50년 동안 전쟁도 있었고 전후 혼란기도 있었으며 이후 고도경제성장기도 경험하였다. 즉 일본의 격동의 시대였던 것이다. 이 50년이 지난 후 노트에 기록된 일들이 그 지역에서 현재 어떻게 전승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명확한 기록을 근거로 50년 전을 제로 포인트로 설정하고 이후의 변화를 규명코자 했다.

6. 추적조사의 성과

「산촌조사」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예상한 일이지는 했지만 이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거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격변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또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도 여러 모로 분석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된 성과를 참고해주길 바란다.

여기서는 여러 요인들 중 한 가지, 즉 전후 일본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하고 이에 전국의 자치체와 지역들이 호응하여 실시한 생활개선의 모든 활동들, 다시 말해 생활개선보급사업과 신생활운동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도 예상하지 못했었다.

당시까지 민속학은 나라의 정치 동향이나 정부의 정책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다. 정치와는 거리를 둔 채 지역의 생업에 대해 조사하고 제사축제·연중행사를 기록하며 혼인 등을 추적하고 민간신앙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지역들의 전승은 추적조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아 점차 변화했음을 알게 되었다.

7. 생활개선운동

생활개선운동이란 정신·물질의 양쪽 측면에서 국민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정책 이면서 이에 계발된 자치체와 지역 단체들, 가정들이 스스로의 생활 개선을 목표로 창의와 노력을 기울인 사업이었다. ‘관’의 기획·계몽과 함께 그 대상인 ‘민’의 의사·고안·실천까지를 포함시킨 활동이기도 했다. 여기서 개선의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생활개선은 관과 민이 함께 참여한 활동이었다.

생활개선은 근대 이후 각 시기마다의 사회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가장 열심히 진행되고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십 수년 간의 활동이었다. 왜냐하면 패전으로 사람들의 정신은 황폐해졌고 물질적으로 매우 피폐했으며 어쨌든 이 혼란 속에서 생활을 재건하고자 하는 국민 모든 사람들의 의지는 필사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

(1) 농림수산성이 주도한 생활개선보급사업

농업기술의 향상 및 경영의 합리화를 통한 농업 생산력의 향상은 중요한 일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농산촌의 생활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생각 아래 이루어진 사업이 이것이다. 어업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농산촌에서 종래 강조되었던 생산력 향상의 도모와는 별도로 농산촌 주민 개개인의 건강, 농가의 소비생활을 독립된 문제로 인식하는 새로운 사상에 기초한 실천적 활동이었다.

이를 위해 쇼와 23(1948)년에 농림수산성 내 생활개선과가 신설되었고 그 안에 주생활, 식생활, 주생활, 가정관리, 보건육아 등의 계가 설치되었다. 생활개선과가 중심이 되어 당시까지 그다지 고려되지 않았던 농가 등의 의식주 개선, 가게 운영, 가정 내 여성의 지위 향상, 가족의 건강, 특히 영유아의 건전한 발육 향상 등을 계획하여 종합적으로 농산어촌의 생활 향상이 도모되었다.

정부 내에서 이러한 체제가 정비된 한편, 실제로 지역에 들어가 생활개선에 대해 계몽하고 보급하는 인력은 시험을 통해 생활개량보급원이라는 이름으로 채용하고 양성했다. 생활개량보급원은 모두 여성(많을 때는 전국에 2천 명 이상 있었음)이었고 이들은 지역을 순회하며 강습회, 좌담회를 열어 생활개선 그룹을 조직하고자 했으며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건을 정비, 지원했다. 즉, 구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실천 활동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차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부뚜막의 개량, 부엌·급수설비의 개량, 목욕탕의 개량, 보존식·분식 요리의 고안, 소가축가금(염소, 닭)의 사육(사육하여 젖과 달걀을 이용하고자 한 것), 농번기 협동취사의 실시 및 임시보육소의 개설(가정 내 여성의 부담이 감소), 작업복의 개량, 파리·모기의 공동구제

이렇게 사람들의 영양, 위생 면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내실이 갖춰지게 되었다. 또 부뚜막과 부엌이 개량됨으로써 여성이 가사일의 중노동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었다고 평가되었다.

이러한 개선활동이 성공을 거두면서 여성들에게는 자신감이 생겼고 지역 내 여성에 대한 평가도 조금씩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신생활운동

생활개선보급운동이 당시 뒤쳐졌다고 여겨지던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 개선 및 여성의 가사 노동의 합리화 등을 도모했다면, 신생활운동은 도시 지역과 회사에까지 운동을 확대시키고자 한 전 국민 대상의 주로 정신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개선 활동이었다.

실제 운동을 담당한 것은 쇼와 30(1955)년에 설립된 정부 기관인 신생활운동협회이다. 신생활운동협회는 국민들의 합리적·민주적인 생활습관을 확립시키고자 설립되었다. 즉 국민들에게 근로를 소중히 여기고 낭비나 사치를 자중하여 저축을 장려하고 오랜 봉건적 인간관계나 관습을 타파하고 양풍선행에 힘쓰며 의식주 생활을 개선하고자 한 운동이다. 이러한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으며 근대 이후 정부 주도로 몇 번씩이나 시도되던 것이었지만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운동에서는 실시 방법이 새롭게 고안되었다. 즉 정부가 전면에서 나서서 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조직, 민간단체, 직장 등과 충분한 연락을 취하여 지역 운동을 지원하고 추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지역, 민간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찾아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자세를 존중했다. 또 정부기관인 신생활운동협회는 강사를 파견하여 문제 발견을 계몽 지도하거나 지역이나 단체에 다른 지역, 다른 단체의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하며 재정적으로 원조를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지원하였다.

각지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필자 나름대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A. 공중도덕의 고양, 서로 돕기 운동, 건전오락의 진흥
- B. 관혼상제의 간소화, 생활 낭비의 배제, 저축과 가계의 합리화, 시간 엄수
- C. 생활행사·관습의 개선, 미신 인습의 타파
- D. 의식주 개선, 보건위생 개선, 모기와 파리를 없애는 운동
- E. 가족계획

D는 생활개선보급사업이나 밑에서 언급할 보건소의 활동과 같지만, 다른 내용들은 신생활운동의 특징이라고 해도 되겠다. 후술하는 (4)의 공민관 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다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지역 전승에 차츰 영향을 주었다.

(3) 보건소 활동

후생성은 특히 국민 보건위생을 중심으로 개선 활동을 펼쳤으며 각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담당했다. 결핵 대책, 전염병 예방, 모자 보건, 영양 개선, 식품 위생, 공중 위생상의 제 문제에 관여했다.

그러나 생활양식, 생활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개선들도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생활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썼다. 농산어촌의 보건·육아의 개선은 각 대상 지역에서 생활개선보급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되었고 모기와 파리가 없는 환경의 실현은 신생활운동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다. 건강의 유지·향상, 지역의 보건위생 등에 기여한 보건소 활동의 의미는 크다.

(4) 공민관 활동

공민관은 문부성 관할의 사회교육 시설이다. 여기에서는 민주주의의 계몽 및 보급을 위해 봉건적 사고를 배제하고 공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역의 교육문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생활 그 자체가 개선되지 않으면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처음에는 위생 활동, 영유아 검진, 공중목욕탕, 공동취사, 공민관 결혼식, 보육활동 등 생활복지에 관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따라서 개선의 대상인 지역 주민들은 앞에서 설명한 생활개선보급사업이나 신

생활운동, 보건소 활동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봉건적 사고가 남아 있던 지역에서는 공민관 활동이 지역 주민의 생활 해방, 지역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결혼식의 간소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공민관의 결혼식 사업도 무시할 수 없다.

‘관’에 의한 생활개선활동은 이상의 (1)에서 (4)의 네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목적을 받아들여 실천하는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생활 개선 활동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소기의 목적은 일단 달성되었으며 지금은 농림수산성 내 생활개선과는 사라졌다. 신생활운동협회는 명칭을 바꾸어 새로운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보건소, 공민관은 지역의 소중한 시설로 계속 남아 있지만 생활개선을 중요한 목표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8. 개선활동에서 누습이라는 인식

인간사회가 성립된 때부터 존재했을 전승이라는 문화는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불가결한 것이다. 비범한 사상과 대발견·대사건에 비교하면 창조성이나 세상을 이끌어가는 에너지는 작지만,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키기는 큰 힘을 숨기고 있다. 차츰 변해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좀처럼 변하기 어려운 성질도 있다.

앞에서 설명한 생활개선과 연관된 정부의 정책들은 지역의 긴 전승 생활에 이른바 손을 집어넣어 휘젓고 지역의 많은 전승들을 정부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시도였다. 활동 내용을 보면 정부가 선이라고 생각한 것은 위생적이고 건강한 생활환경, 금전적·물질적 안정, 상호협동의 정신, 합리적인 사고와 같은 것들로, 사람들의 생활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는 물론 보편적인 것들이기에 어느 정도는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선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각지의 전승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제사축제나 연중행사 때의 낭비나 의례적인 도둑질, 마을 회의 때의 긴 이야기·잡담, 절·신사예의 과도한 소원빌기, 각종 액막이 의례, 출산 직후의 의례, 혼례·장례 때의 증답관행 등. 개선 활동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개선되어야 할 대상이겠지만, 이들을 일률적으로 악습, 누습이라고 단정 짓고 무리하게 개선시키고자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은 무미건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지역 밖의 사람들 눈에는 쓸데없고 비합리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일 수 있다. 그러한 지역의 논리, 오랫동안 전승에 익숙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든 관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선이라는 가치를 들고 이러한 전승을 무리하게 개선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분명 동요할 것이다. 지역사회의 안정적 유지도 곤란할 수 있다. 민속학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고민할 때에도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어디에도 없기에 민속학이 제정하거나 어떤 방향을 제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자신들의 전승문화가 누습으로 여겨져 개선하도록 지도받는 사람들 각각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바꾸고자 하는지를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방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